

“신종플루로 떠난 아들… 눈물은 꽃이 됐죠”



포토 에세이 ‘내가 흘린…’ 떠난 이광기
신앙의 힘과 봉사로 더욱 단단해져
제대로 멋진 악역 꼭 해보고 싶어
새해엔 신작 트로트 예능에 출연 예정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아이가 잊히는 건 싫잖아요. 준서가 태어나고 새로운 기쁨이 왔지만 그렇다고 석규와의 추억이 흐릿해지는 건 미안해요. 하지만 과거를 소중하게 기억하더라도, 슬픔은 이제 좀 털고 싶어요.”
한창 대하사극과 예능을 오가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동하던 배우 이광기는 12년 전 신종플루로 첫아들 석규 군을 떠나 보냈다. 한창 씩씩할 일곱 살이었다. 워낙 활발히 얼굴을 비추던 이광기였기에 가족의 아픔은 전 국민이 아는 뉴스가 됐다. 아들이 떠나고 주변에서 “천사가 됐을 거야”라고 다독였지만 이광기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다. “왜 내 아이여야 했나요?”라는 원망만 가득했다고 회고했다.
이후 그는 한동안 예술과 봉사 활동에 주력했다. 그 사이 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지는 제안이 끊이지 않았지만 망설이거만 하다 12년이 흘렀다. 그리고 2020년, 전 세계를 위기로 내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왔다.
최근 특수공 중명전에서 만난 이광기(51)는 “세상이 꼭 내 마음 같지는 않아서 책을 내면 이걸 또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저도 딱 마음이 서지 않아 미뤄오다가 코로나19가 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12년 전 신종플루 때만 해도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하고 감당하기 힘든 것인지 인지하지 못할 때였죠.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패턴까지 다 바뀌었어요. 다들 걸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계신 분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했어요.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들 깨달았어요. 이제 이걸 남 일이 아니거든요.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일이지요. 그제야 사명감이 들었죠. ‘이제 정말 책을 써야겠다.’”
그는 이번엔 낸 포토 에세이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에서 삶이 꽃이라면 죽음은 삶의 뿌리라고, 자신에게는 석규가 뿌리였다고 강조한다. “아들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도록 해주셨죠. 우리 가족은 예쁜 꽃 군락이었고, 석규가 떠나면서 하나가 사라져 대신 그 군락을 이룰 수 없을 거라 했는데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러면서 “최근 보였던 이이영 전 장관께서 ‘눈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사람이 눈물이 매마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마음을 안다는 말처럼, 많은 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을 텐데 그분들께 눈물은 결국 꽃이 될 수 있다는 걸 전해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족이 중병을 앓거나 죽으면 가족 간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광기의 가족은 신앙의 힘과 봉사라는 뜻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쓰러지면 가족이 다 쓰러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버틴 거죠. 석규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오열하고 딸이 쓰러져 있는 걸 보면 저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가 울면 다 무너지겠구나 싶어 참았죠.” 그는 그러면서 “결국 흘려가는 시간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고 덧붙였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광기는 틈틈이 메모했고, 아들과의 사진도 아카이브화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부부와 첫 딸

연지, 둘째 아들 준서에 석규의 모습을 합성으로 더한 사진이 실렸다. 이 사진은 추모공원에도 붙여놓았다고 한다.
유튜브로 라이브 경매쇼를 해 취약계층을 돕고,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그는 “내가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석규가 나중에 저한테 ‘아빠 너무 수고했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다른 예능감을 자랑하던 이광기답게 책은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엔 연기 인생을 재치 있게 되짚어보는 내용으로 마무리했다. 책장을 덮었을 때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한 배려가 엿보인다.
‘태조 왕건’부터 ‘인수대비’, ‘정도전’, ‘징비록’까지 다양한 대하사극으로 진주했던 그는 “한류 사극도 중요하지만 공영 방송 KBS가 정통 대하사극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줘야 할 의무가 있다. 내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멋진 악역도 꼭 해보고 싶다. 인생 캐릭터인 하문처럼 입체적인 인물이면 더 좋겠다. ‘소생 하문이 읊는다’는 지금 생각해도 쫓히는 대사”라고 강조했다.
새해에는 예능에서도 그를 만날 수 있다. 과거 여러 차례 앨범을 냈던 가수이기도 한 만큼 MBN의 신작 트로트 예능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한다. “준서가 요새 트로트에 꽂혀서 부르는데 참 귀여워 따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웃었다.
그의 활발한 활동에 동료 선배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를 봉사의 길로 인도한 배우 정애리는 추천사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고와 고사란히 담겨있다. ‘끼쟁이’ 이광기의 따스하고도 초롱한 눈빛과 마주해보자”고 쓰기도 했다.
“다들 책을 보고 눈물을 펴며 울리면서 ‘열심히 살아주세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말하죠. ‘내가 또 눈물 흘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눈물짓게 하는 건 그만하려고요.”
/연합뉴스

‘범인은 바로 너 3’ 유재석 “멤버 간 호흡 기대”

“이승기·이광수 합류로 펼쳐지는 이야기 포인트”

“시즌 3까지 함께 하다 보니 멤버 간의 호흡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막내라인들의 예능감이 이번 시즌에서 제대로 터지니 기대해주세요.”
‘국민 MC’ 유재석(49)은 19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범인은 바로 너! 시즌 3’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열린 ‘범인은 바로 너! 시즌 3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그는 “지난 시즌에서 ‘꽃의 살인마’였던 이승기가 다시 등장하고, 시즌 1을 끝으로 도망쳤던 이광수가 합류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재미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제 드디어 우리 일곱 사람의 힘이 잘 맞아가고 있었는데 마무리가 되니 아쉽다”며 시즌 3로 막을 내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애절한 감정을 전하기도 했다.
‘범인은 바로 너’는 넷플릭스에서 시도한 첫 한국 오리지널 예능 시리즈다. ‘허담’ 탐정들이 모여 사건을 추리해나간다는 기본 골격은 같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그 과정에서 한층 더 거대해진 음모에 다가서는 탐정단의 모습이 그려질 예정이다.
지난 시즌 합류해 활약한 이승기는 “시즌 3로 인사를 드리게 돼 기쁘면서도 동시에 마지막이라 아쉽다”면서 “지난 모든 시즌을 함축한 재미와 추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탐정단 멤버 7명이 모여 다른 예능을 하게 된다면 “예능판 ‘왕좌의 게임’을 해보고 싶다”며 “개인이 하나의 나라가 돼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는지 개인전을 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첫 시즌에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활약했던 이광수도 다시 합류해 ‘완전체’



탐정단이 사건 해결을 위해 나선다.
이광수는 “시즌 2에 합류하지 못해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번 시즌에 돌아올 수 있어 좋았다”며 “그만큼 더 열심히 재밌게 촬영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밝혔다.
‘범인은 바로 너! 시즌 3’에서는 유재석, 이광수, 이승기 외에도 기존 탐정단 멤버였던 박민영, 김중민, 세훈, 세정이 함께 추리에 나선다.
기존 멤버 외에도 배우 송지호, 그룹 엑소의 수호 등 다양한 게스트들이 등장해 또 다른 재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22일 공개. /연합뉴스

가요계 아웃사이더에서 월드스타까지...싸이, 데뷔 20주년

전무후무한 캐릭터로 2001년 국내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디딘 가수 싸이가 지난 18일 데뷔 20주년을 맞았다.
그가 수장으로 있는 소속사 페이제이션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싸이의 지난 20년을 요약한 영상을 게재하고 “싸이 데뷔 20주년을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다.
싸이 역시 연도별 자신의 모습을 담은 영상 및 사진을 게재해 20주년을 자축했다.
1집 ‘싸이 프롬 더 사이코 월드’의 타이틀곡 ‘새’로 얼굴을 알린 싸이는 당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의상과 춤, 노랫말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그를 ‘염기 가수’라 부르며 아웃사이더 취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싸이는 2·3집을 내며 본인 고유의 음악 세계를 단단히 쌓아 올렸고, 특히 관객을 들었다 놔다 하는 무대 장악 능력으로 공연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챔피언’, ‘연예인’, ‘라잇 나우’, ‘아버지’, ‘어떻을까’, ‘뉴 페이스’, ‘나팔바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냈는데 대부분 그가 직접 만든 곡이다.
2012년은 싸이 커리어의 최대 분기점이었다.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일약 월드 스타로 발돋움한 해였다.
이 곡은 K팝 가수들에게 ‘마의 장벽’이라 인식되



던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파란을 일으켰다.
뮤직비디오 역시 크게 흥행해 유튜브 사상 최초 10억 뷰, 주간 조회수 최장(36주) 1위, 연간 조회수 2년 연속 1위 등 각종 기록을 쏟아냈다.
이런 성과로 싸이는 생각지도 못하게 미국으로 소환됐고 현지 매니저먼트 및 레이블과 계약했다. 이후 발표한 ‘젠틀맨’, ‘행오버’ 등도 ‘강남스타일’ 정도의 파급력은 아니지만 준수한 성적을 냈다.
그의 미국 활동은 미국에 K팝을 널리 알리고 성공 사례를 남김으로써 이후 미국에 진출할 후배 K팝 가수들의 길을 터줬다고 평가받는다. K팝은 ‘강남스타일’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p>법무사 이영석사무소 동구 범발로 16-1(자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 등 상담업무 회사설립, 임원변경등명서,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법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p>	<p>보광세탁소 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 농장다리앞) 각종 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 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p>	<p>국수나무 광주신안점 북구 서안대로95(신안교앞 고은상가1층) 각종 국수와 돈까스, 각종 식재료 ☎ 062)531-0331, 010-5511-0331</p>	<p>보물섬희활어회 직판장 동구 산수동 556-58(광주은행 앞) 프랜차이즈, 홀손님 환영 포장전문, 각종회 산지직송 산수직영점 ☎ 062)234-8882, 010-3621-0123</p>	<p>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p>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p>	<p>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p>법무사 김운희사무소 목포시 정의로26-4 변조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연계,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p>	<p>드림케어슬루션 동구 금남로161-11 금오빌딩 3층 의료기기도·소매 온·냉 알칼리 이온수기 5분도살(황미살) 즉석 도정기 ☎ 010-3118-5679</p>	<p>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바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p>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웅추해신삼계탕 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p>	<p>제니골드(귀금속카페) 동구 충장4가 3-3 (광주 충장로 귀금속거리 사거리) 금(14k·18k·24k) 매입·판매 아메리카노, 자몽에이드, 진저라떼, 생강차 대표 박형수 ☎ 010-8619-2954</p>	<p>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